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효과

김안나*, 권영숙**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Employed Mother's Work-mother Role Conflict on Parenting Stress: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Satisfaction

An-Na Kim*, Young-Sook Kw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Dep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취업모가 지각한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만 2-5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 515명이었다. 조사는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어머니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보육정책의 정착을 통하여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낮추고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취업모, 일-어머니 역할 갈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mother role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Participants were 515 mothers of children aged 2 to 5 recruited from companies in Gyeonggi Province, Kore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5 to March 20,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mong study variables. As a result, work-mother role conflict and parental satisfaction directly influenced parenting stress. Work-mother role conflict directly influenced parental satisfaction. The indirect effect of work-mo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al satisfaction as a mediator was verified on parenting stress. Therefore, to relieve the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diverse programs to improve parental satisfaction need to be utilized along with decreasing work-mother role conflict through the settlement of child care policy.

Key Words : Employed mother, Work-mother role conflict, Parenting stress, Parental satisfaction

Received 31 July 2014, Revised 29 September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Young-Sook Kwon(Joongbu University)
Email: yskwon@joong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2%인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29세에는 71.8%이었으나 결혼과 육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30대에는 57.0%로 크게 감소하였고 40대에 65.9%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0.1%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15.8%나 증가하여[1] 취업모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2].

일반적으로 일상적 양육이란 배변, 낮잠, 식사, 간식, 세면 등 생존과 건강에 관련된 기본 생활을 영위하도록 영아를 돌보는 것이다[3]. Kang[4]은 이러한 일상적 양육에서 오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일상적 스트레스로 분류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인해 부모가 지각하는 일상적인 파분함, 신경질, 당황 같은 감정으로 정의한다. 즉, 양육스트레스란 부모됨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변화 상황에서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긴장과 압박감을 의미한다[5]. 특히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양육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6].

더욱이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은 점차 더 큰 스트레스로 인식되는 경향이다[5, 7]. Kim과 Cho[8]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분담이 요구됨에도 가족가치관은 여전히 전통적인 경향이 많아 자녀양육의 책임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9].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장애아동[7, 10, 11]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12, 13]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정상아 특히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아동의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14] 연령에 있어서 미취학 어린 아동은 경험과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돌보는 시간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부모의 역할긴장이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여[15] 양육부담감도 크다[16]. Song, Jang과 Kim[17]의 연구에 의하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여부는 일가족양

립갈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 건강상태, 고용상황, 근로시간, 직장 내 지지와 가족지지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은 맞벌이 남성이나 홀벌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의 일과 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으로서[18, 19, 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이나 문제행동[21, 22, 23] 등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일과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취업 여성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보람, 만족을 말하는데[24], Yang[25]은 일로 인해 아버지 역할 수행이 방해받아 양육 참여도가 적을 경우 부모역할만족도가 저하된다고 하였고 Seo와 Lee[24]는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야기함으로써 부모역할만족도 저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부담, 자유의 박탈, 훈육의 어려움 등과 같은 자녀양육의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고[26]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므로[27] 양육스트레스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어머니의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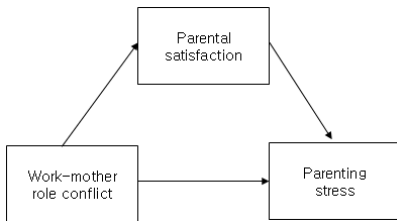
둘째, 취업모의 일-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취업모의 일-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한 후 모형에 대한 적합도, 매개효과와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P시에 소재한 직장내 근무하는 만 2-5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515명이다.

2.3 연구 도구

2.3.1 양육스트레스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Kang[28]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Abidin[29]의 Parenting Stress Index 중 Parental Distress 요인, Crnic과 Greenberg[3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및 Mann과 Thornberg[31]의 Maternal Guilt Scale에서 44문항을 추출하고 취업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총 78문항을 선정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발되었다. 본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수행에 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과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3개 하위척도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0, .86, .85이었다.

2.3.2 일-어머니 역할 갈등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Small과 Riley[32]이 개발한 Work Spillover Scale(WSS)을 기초로 Seo[33]가 제작한 '일-아버지 역할갈등' 척도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로 수정하여 Choi와 Cho[2]가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장생활의 부담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역할 부족 갈등' 5문항, '시간·에너지·심리적 제약 갈등' 3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 요인은 역채점한 뒤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로 인한 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어머니 역할 부족 갈등 및 시간·에너지·심리적 제약 갈등 하위척도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0과 .86이었다.

2.3.3 부모역할만족도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Guidubaldi와 Cleminshaw[34]가 개발한 CGPSS(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를 Hyun과 Cho[35]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지지 6문항, 부모역할 갈등 3문항, 부모-자녀관계 5문항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해당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척도는 총 34개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인 부모역할 갈등 요인은 역채점한 뒤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일반적 만족도(11문항), 부모-자녀관계(5문항), 배우자의 지지(10문항), 부모역할 갈등(10문항) 4개 하위척도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6, .85, .90, .82이었다.

2.4 자료 수집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질문지의 적절성과 문제점, 그리고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예

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만 2-5세의 유아를 둔 취업모 2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취업모와의 직접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 결과 문항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후 완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기도 P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기관의 책임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보조원이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모두 56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5부를 제외하고 최종 515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2.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 역할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는 χ^2 (CMIN), TLI(Tuc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χ^2 , TLI(>.90), IFI(>.90), CFI(>.90), RMSEA(<.08)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χ^2 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36].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413명(8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위는 정규직이 400명(77.7%)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이 301명(58.4%), 1명이 152명(29.5%), 3명이 53명(10.3%), 4명이 9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졸업 225명(43.7%), 3년제 졸업 113명(21.9%), 대학원 졸업 이상은 98명(19.0%)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51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ear)	20-29	11	2.1
	30-39	413	80.2
	40-49	91	17.7
Position	Full-time	400	77.7
	Non-regular	115	22.3
Number of children	1	152	29.5
	2	301	58.4
	3	53	10.3
	4	9	1.7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79	15.3
	College	113	21.9
	University	225	43.7
	Graduate school	98	19.0

3.2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대상자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측정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5점 만점에 2.32±0.52점, 부모역할만족도는 2.88±0.39점, 양육스트레스는 2.24±0.43점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8.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 하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와 첨도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에 최대우도추정 절차를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1 r (p)	2 r (p)	3 r (p)	M ±SD	Skewness	Kurtosis
1	1.00			2.32 ±0.52	.188	.479
2	-.410 (***)	1.00		2.88 ±0.39	.193	-.280
3	.549 (***)	-.613 (***)	1.00	2.24 ±0.43	-.118	.709

1=Work-mother role conflict; 2=Parental satisfaction;
3= Parenting Stress; *** p<.001.

3.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 값은 11.23 (df=24, p<.001), TLI=0.90, IFI=0.91, CFI=0.91, RMSEA=0.07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평가에서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따라서 모형하의 변인들 간의 모수치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Table 3> Model fitness indexes

Variable	NPAR	χ^2 (CMIN)	df	TLI	IFI	CFI	RMSEA
Model fit	30	11.23	24	.90	.91	.91	.07

TLI=Tuc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3.4 모형 분석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 경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연구모형의 경로 모수치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beta = .349, p < .001$), 부모역할만족도($\beta = -.673, p < .001$)이었다.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beta = -.475, p < .001$)이었다.

모형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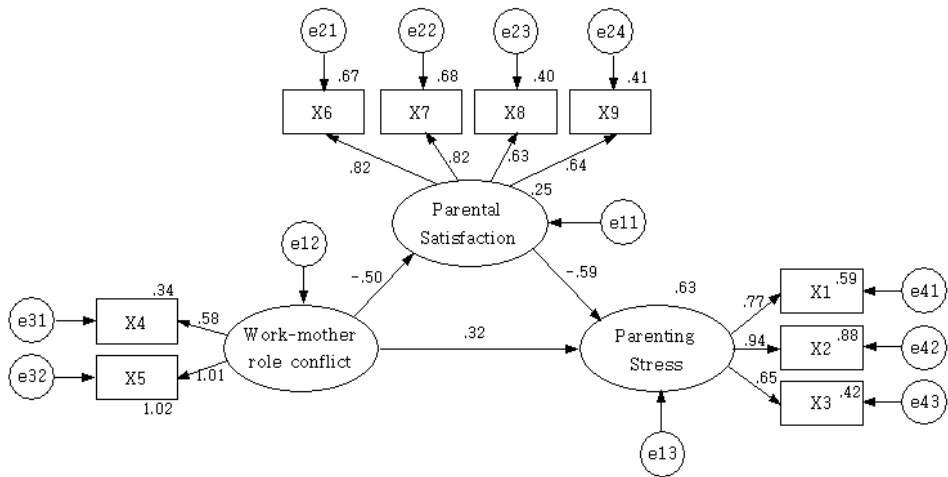
<Table 4> Path coefficients for parental stress

Variables	β	SE	CR	Standardized β	p
Parental satisfaction <- work-mother role conflict	-0.475	0.051	-9.248	-0.499	***
Parenting stress <- work-mother role conflict	0.349	0.050	6.994	0.319	***
Parenting stress <- parental satisfaction	-0.673	0.062	-10.818	-0.586	***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 parenting stress	1			0.770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 parenting stress	1.157	0.055	21.042	0.938	***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 parenting stress	0.807	0.054	15.038	0.651	***
Conflict due to time, energy,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 work-mother role conflict	1			0.582	
Conflict due to lack of mother role <- work-mother role conflict	1.604	0.167	9.624	1.009	***
General satisfaction <- parental satisfaction	0.927	0.048	19.415	0.820	***
Parent-child relationship <- parental satisfaction	1			0.823	
Spouse support <- parental satisfaction	1.184	0.082	14.448	0.631	***
Parent's role conflict <- parental satisfaction	0.952	0.065	14.667	0.639	***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 p<.001.

3.5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유아교사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였으며, 간접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Fig. 2] Path diagram for parenting stress

X1=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X2=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X3=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X4=Conflict due to time, energy,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X5=Conflict due to lack of mother role; X6=General satisfaction; X7=Parent-child relationship; X8=Spouse support; X9=Parent's role conflict;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parenting stress path model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al satisfaction <- work-mother role conflict	-.475***		-.475***
Parenting stress <- work-mother role conflict	.349***	.320***	.669***
Parenting stress <- parental satisfaction	-.673***		-.673***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통계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75, p < .001$). 부모역할만족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9, p < .001$). 그리고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73, p < .001$).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beta = .349, p < .001$)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에 간접효과($\beta = .320, p < .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과 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높

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또한 부모역할만족도도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든다. 일과 어머니의 역할 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역할만족도는 일과 어머니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중재하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하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경로모형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 및 부모역할만족도이었다. 즉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간접효과 변수이었는데 직접효과 수준 .349에 비해 간접효과 수준이 .320으로 나타나 직접효과보다 작은 효과이었다. 이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이 미흡하여[2, 37, 38] 취업 여성들이 겪는 양육부담감은 여전히 크다[16]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부모역할만족도의 직접효과도 -.673으로 나타나 일-어머니 역할 갈등 감소뿐만 아니라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총 효과는 부모역할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논의할 수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Noh와 Hwang[27]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0-3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ang과 Yang[39]의 연구에서도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역할만족도는 평균 4.0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6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결과는 단순 상관관계만을 제시하고 있어 추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양육부담이 적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40]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있어서도 부모역할만족도는 매우 영향력 있게 작용하므로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27]. 자녀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참여와 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모교육이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등의 실시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인은 일-어머니 역할 갈등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낮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아버지 역할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저하된다고 보고한 Seo와 Lee[2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고, 동일한 척도로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Ko, Lee와 Kwon[41]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42, 43]와 달리 취업 유무와 부모역할만족도는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44] 결과도 있어 취업모의 특성 중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

Yang과 Shin[45]은 일-가족 갈등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여성의 정신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46]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47]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덜어 줄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24로 평균 이하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자의 77.7%가 정규직이었으며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취업모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Choi와 Cho[2]의 연구에 의하면 만 3-5세 영유아를 둔 취업모에서 비정규 근무가 높을수록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에 따른 일-어머니 역할 갈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근로환경을 고려한 연구모형의 개발과 검증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모형을 제시하고 구조적 관계를 밝힌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취업모를 대

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확대된 대상자 표집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로 분석을 통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였다. 만 2-5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 515명에 대하여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 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시행 중인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정착을 통해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부모역할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Women's lives through statistics in 2014. 2014.
- [2] Y. H. Choi, B. H. Cho, Employed mother's work-mother role conflict according to mother's work variables and parenting tim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 No. 1, pp. 1-15, 2007.
- [3] Y. S. Seo, K. H. Kim,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Paju: Yangseowon, 2006.
- [4] H. K. Kang, B. H. Cho, Dual-career parenting stress : Effects of mother's values and support system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0, No. 2, pp. 41-55, 1999.
- [5] M. K. Kwo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arenting stress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9, No. 2, pp. 39-50, 2011.
- [6] H. Y. Noh, A study on the process of separation and the rearer's roles in a one-year-old toddler.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8.
- [7] S. Y. Yang, Adaptation resilience in relation to parenting stress for mothers with childre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 pp. 280-293, 2014.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1.280>
- [8] K. H. Kim, B. H. Cho,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1, No. 4, pp. 35-50, 2000.
- [9] J. H. Im, Female workers' stress from nurturing with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5, pp. 132-143, 2014.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5.132>
- [10] A.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 mother having a child with autis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4, No. 1, pp. 225-247, 2012.
- [11] J. J. Kim, B. H. Chong, M. H. Oh, A study on parenting stress of disabled children's fathers in IT er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 363-370, 2013.
- [12] Bennett, E., English, M. W., Rennoldson, M., Starza-Smith, A., Predicting parenting stress i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brain tumours. *Psycho-Oncology*, Vol. 22, No. 3, pp. 629-636, 2013. <http://dx.doi.org/10.1002/pon.3047>
- [13] I. Y. Yoo, D. J. Kim, Parenting stress and need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Vol. 10, No. 4, pp. 423-430, 2004.
- [14] J. W. Lee, The childcaring stress of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 7, No. 2, pp. 207-2016, 2003.
- [15] Hill, E. J., Hawkins, A. J., Ferris, M., Weitzman, M., Finding an extra day a week: The positive influence of perceived job flexibility on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Family Relations*, Vol. 50, No. 1, pp. 49-58, 2001.
- [16] N. H. Kim, E. J. Lee, S. Y. Kwak, M. R. Par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9, No. 3, pp. 188-200, 2013.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3.188>
- [17] D. Y. Song, S. J. Jang, E. J. Kim,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work-family conflict of Korean working people: Focusing the effect of workplace support and familial support. *Social Welfare Policy*, Vol. 37, No. 3, pp. 27-52, 2010.
- [18] Abidin, R. R.,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9, No. 4, pp. 298-301, 1990.
- [19] M. S. Kim, H. J. Moon,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3, No. 8, pp. 25-35, 2005.
- [20] J. L. Lee, Mode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maternal acceptance - rejection -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Vol. 29, No. 2, pp. 57-71, 2008.
- [21] J. H. Park, Y. A. Jang,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development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8, No. 2, pp. 327-353, 2004.
- [22] G. Y. Cho, Y. S. EO, M. S. Ah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rearing stress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in preschool children's mot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6, No. 2, pp. 136-143, 2010.
<http://dx.doi.org/10.4094/jkachn.2010.16.2.136>
- [23] H. M. Kim, H. S. Doh,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Vol. 25, No. 6, pp. 279-298, 2004.
- [24] H. Y. Seo, S. H. Lee, The relation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4, No. 2, pp. 257-280, 1999.
- [25] M. K. Yang, A study on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paren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4, No. 4, pp. 87-101, 1996.
- [26] Guidubaldi, J., Cleminshaw, H. 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 NY: Academic Press, 1988.
- [27] J. Y. Noh, H. S. Hwang,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satisfaction on attachment formation with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1, No. 1, pp. 27-40, 2012.
<http://dx.doi.org/10.5934/KJHE.2011.21.1.27>
- [28] K. H. Kim, H. K. Kang,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5, No. 5, pp. 141-150, 1997.
- [29]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Manual* (3rd ed).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 [30] Crnic, K. A., Greenberg, M. T.,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61, No. 5, pp. 1628-1637, 1990.
- [31] Mann, M. B., Thornberg, K. R.,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 27, No. 3, pp. 451-464, 1987.
<http://dx.doi.org/10.1080/0300443870270304>
- [32] Small, S., Riley, D.,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 No. 1, pp. 51-61, 1990.
- [33] H. Y. Seo, The relation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8.
- [34] Guidubaldi, J., Cleminshaw, H. K., The development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4, No. 4, pp. 293-298, 1985.
- [35] O. K. Hyun, B. H. Cho, Development of the parent-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2, No. 1, pp. 103-117, 1994.
- [36]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37] G. S. Yoo, Work-family balance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 18, No. 1, pp. 111-125, 2012.
- [38] B. J. Chun, M. R. Han, Work and family role conflict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women entrepreneurs in contents busines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8, No. 9, pp. 150-165, 2008.
- [39] Y. J. Yang, Y. S. Yang, Paren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of disabled children's mother. *Natural Science*, Vol. 17, No. 1, pp. 43-59, 2006.
- [40] E. J. Jung, M.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iculty of nurturing and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infants: The mediating effect of couple communica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pp. 485-510, 2013. <http://dx.doi.org/10.13049/kfwa.2013.18.4.485>
- [41] K. M. Ko, S. H. Lee, Y. I. Kwon, The effects of the fathers' job stress on paternal involvemen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parent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7, No. 3, pp. 113-137, 2012.
- [42] G. H. Kim, The effect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life-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9, No. 5, pp. 49-57, 2011.
- [43] J. H. Kim, H. J. Moon,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4, No. 1, pp. 115-129, 2006.
- [44] B. H. Cho, O. K. Hyun, Parental satisfaction of Korean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2, No. 5, pp. 97-108, 1994.
- [45] S. N. Yang, C. S. Shin,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3, pp. 70-103, 2011.
- [46] Quittner, A. L., Glueckauf, R. L., Jackson, D. N.,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6, pp. 1266-1278, 1990.
- [47] G. J.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 family compatibility support policy on child foster burden and childbirth attitude. Ph.D.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08.

김 안 나(Kim, An Na)



- 2002년 2월 :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
- 2011년 2월 : 한국국원대학교 유아교육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사교육, 교수방법
- E-Mail : annakim21@joongbu.ac.kr

권 영 숙(Kwon, Young Sook)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9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2년 9월 : Osaka University 의 학부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노인간호
- E-Mail : yskwon@joongbu.ac.kr